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성경이야기

안녕하세요, 친구들!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야!” 하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네!” 하고 달려가요? 그런데 가끔은 누가 부른 건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어린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은 깜짝 놀라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 “저를 부르셨어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엘리는 부르지 않았어요. 이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됐어요! 그때 엘리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알려 주었어요. “다시 부르시면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듣고 있어요’라고 대답하렴.” 사무엘은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는 사무엘이 용기 내어 말했어요.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랑하셔서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세요. 사무엘 처럼 “네! 하나님!” 하고 대답하는 친구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기쁘게 순종해요.

중일교회 가정사역부

